

BACK Seung Woo

백승우

“I’m not an artist who seriously documents history or an artist who seeks sublime beauty. When asked who I am, I might define myself as a narrow-minded and cynical daydreamer, wanting to construct my own world by traveling around in search of what I want, transforming what I find, creating new things, and imagining.”

Excerpt from Artist's Interview in 2007
IANN art photography magazine vol.1

The title of this series is *My Life in War*. This is an individual documentation as well as a personal fantasy about the military and warfare, made up of personal, societal, and historical aspects

As a way to observe and to reconnect with memories, I visited the military camp where I had previously spent 26 months, serving in the army. It has now become a tourist sight and a firing range which uses

real bombs. During my visits I found military camps called ‘GP’ and training camps for reserves which have been turned into a type of game that seemed nothing like real warfare. I sensed an irony which spoke more about reality than the reality itself. During this time, I encountered a false truth which seemed closer to reality than reality, and began to question whether the memories that I had been reflecting on for so long were the only things that existed.

I live within a society where numerous relationships are deeply connected with the military service. Korean men are required to spend a defined amount of time serving as soldiers, yet at the same time, despite being in the middle of war, we live without thinking much about it. As I photographed these military camps, I somehow felt like I was crossing the border, as if I was really crossing the national border, prior to entering I had to submit my identification card and have my background checked.

It is felt familiar yet they are actually unfamiliar spaces and unfamiliar situations. Transplanted memories are repeatedly being told to someone. As time passes, the memories are on my side as truths as if they were of my own. This process happens through a medium like photography. I wanted to throw away the collective memories which consume us, and thought naively that this would lead to the real beginning of new stories. I wanted to sweep away delusions of what was real and what was not, what we wanted, and what we added.

“나는 진지하게 역사를 기록하는 작가도 아니고, 숭고한 아름다움을 찾는 작가도 아니다. 굳이 나에게 대해 정의 하자면 나는 원하는 것을 찾아 다니고, 왜곡하고, 만들고, 상상하며, 나의 세상을 만들고 싶은 소심하고 시니컬한 공상가일 뿐이다.”

작가와의 인터뷰 글 중, 2007
IANN 예술사진잡지 VOL.1

이 시리즈의 제목은 <마이 라이프 인 워>이다. 이 작업은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군대와 전쟁, 사회적 인 관계에서의 군대와 전쟁, 역사적인 관계에서의 군대와 전쟁에 대한 개인적인 기록이자 개인적인 망상이다.

나는 내가 26개월을 보냈던 부대를 다시 방문해 내 기억들을 되물어 찾아가고, 지금은 관광지로 변해버린 전방대를 찾아 갔으며, 실제 포탄을 쏘는 사격장을 찾았다. GP 라고 불리는 전방의 초소를 갔으며, 현실의 전쟁과 다른 게임의 일종이 되어 버린 예비군 훈련장도 찾았다. 그리고 그 곳에서 실재라고 믿는 현실보다 더욱 실제 같은 아이러니를 만났다. 그러는 동안 어쩌면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가짜를 만나며, 나는 보인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고 믿고 마는 그런 기억들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내가 살고 있는 한국사회는 군대와는 뭘 수 없는 수많은 인연들을 담보로 한다. 군인에 신분으로 일정기간을 보내야 하며, 전쟁의 중심에서 그것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다. 군부대를 촬영하는 일은 경계를 넘는 일이었다. 마치 국경을 넘는 것처럼 신분을 미리 제출하고, 신원 조회를 마친 후 입장이 허락되었다.

익숙하지만 낯선 공간, 낯선 상황들.

이식된 기억은 누군가에게 끊임 없이 반복되어 이야기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그 기억은 내가 겪은 기억 인양 진실이 되어 내 편에 있다. 이 과정은 사진과 같은 매개물을 통해 더욱 수월하게 믿어진다.

우리가 참여하는 집단적 기억을 버리고 싶었고, 그렇게 하면 무엇인가 다른 이야기가 제대로 시작될 수 있을 거라 유치하게 믿었다. 무엇이 진짜이고, 우리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우리가 더한 것인지 이런 망념들을 모두 날려 버리고 싶었다.









